

“내 땅이야...” 54년 된 마을도로 파헤쳐

장흥읍 월평마을 도로 중장비로 훼손 171세대 통행 불편

주민 “재산권 행사” vs 주민·군청 “통행권 침해” 다툼 예고

장흥군 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온 마을도로 50여m가 일순간에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도로 소유자가 수십 년 만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포장을 걷어내는 등 훼손했기 때문이다.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과 장흥군은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7일 장흥군과 월평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윤모(65)씨가 중장비를 동원해 장흥읍 향양리 월평마을 안길 도로(길이 50m, 폭 3m)의 아스콘 포장을 파헤쳤다.

윤씨의 이 같은 조치로 도로 밑에 있는 하

수도관과 철근이 드러나고 포장돼 있던 아스콘 덩어리들이 나뒹굴면서 차량과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주민들은 훼손된 도로 옆에 남은 1m도 안 되는 도로로 통행하고 있으며, 1가구는 입·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평마을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171세대 360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향양리 254-6번지와 254-8번지로 각각 1962년과 1974년 답(番·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다. 전 소유자인 윤씨 부친은 농어촌공사 측과 맞교환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하수도와 도로로 활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윤씨 부친의 승낙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만든 일명 ‘새마

을 도로”라며 “지난 2008년에는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했고, 2014년에는 도로 포장도 새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해당 부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유지에 공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장흥군과 마을에 민원을 제기했다.

윤씨는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고, 장흥군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적도, 사용승낙서를 써준 적도 없다”며 “2008년과 2014년 공사를 하면서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흥군과 마을주민들은 공익재산 훼손과 통행금지 불면 등으로 윤씨를 고발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윤씨 부친이 농어촌공사 측과 맞교환 임대방식으로 토지를 교환한 이후 현재 마을도로 부지 외에 대체 부지를 윤씨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흥군이 그동안 보상협

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은 법적 다툼의 소지로 남아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며 “포장을 훼손한 것은 공익재산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평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도로를 일순간에 훼손한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냐”며 “교통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통행도로 용도로 사용된 지 20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지역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년 이상 되면 관습법상 도로로 인정해주는 상황”이라며 “또 갑작스런 소유권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월평마을 안길 도로가 파헤쳐진채 10여일째 방치돼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선출방식 재투표로 결정

지병문 총장 “구성원 의견 한번 더 묻자” ... 평의원회 총투표 예정

전남대가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 직선제 선출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총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 그 방식을 따르자”고 제안하면서다.

7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 총장은 김영철 교수회장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담화문을 통해 “대학 평의원회가 교수 총투표를 거

쳐 제안한 직선제와 대학본부가 자체 발의한 간선제 중 어떤 안이 더 적합한지 구성원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면서 “구성원 의사에 따라 선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지난 4월 교수 총투표를 통해 직선제로 총장을 뽑을 것을 결의했지만 지 총장은 간선제 방식의 개정안을 발의해 교수회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 회장은 이에따라 지 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8일 단식농성을 중단기로 했고 평의원회는 지 총장 제안에 대한 교수·직원·조교·학생 등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대 대학지운영협의회(대자협)는 지난 5일까지 총장선출 방안에 대한 학생·교수·총동장회 등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최종 합의안 제출 시기(5일)를 미뤄줄 것을 강연욱 이사회장에 요청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순천 조례동 로또 명당?

판매점 1곳서 1등 2명

순천시 조례동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한 회에 1등 당첨자 2명이 나왔다.

7일 나눔로또는 “제714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번호가 ‘1, 7, 22, 33, 37, 40’이며 순천의 한 판매점에서 2명이 동시에 당첨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등 당첨자 가운데 자돈은 3명이고 수동은 4명이며 2등 보너스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7명으로 20억8513만원씩을 받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7 달몰림 10:41
해질름 19:29 달일출 22:34

소나기 피하세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된다.

◇지역별 날씨(℃)

광주	소나기	25/35	보성	구름많음	24/33
목포	구름많음	24/33	순천	구름많음	25/34
여수	구름많음	26/32	영광	구름많음	24/34
나주	구름많음	24/35	진도	구름많음	25/34
완도	구름많음	25/33	전주	구름많음	25/33
구례	소나기	24/35	군산	구름많음	25/32
강진	구름많음	24/33	남원	구름많음	24/32
해남	구름많음	24/33	홍산도	구름많음	23/30
장성	구름많음	23/3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동	0.5~1.5	북서~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동	1.0~1.5	북서~동	1.0~1.5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34	19:44
	17:51	22:54
여수	12:13	05:56
	00:00	18:12

◇주간 날씨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	☀	☀	☀	☀	☀	☀
25/35	25/34	25/35	25/35	25/35	25/34	25/33

광주 광산구, 학교 ‘납 우레탄트랙’ 철거 지원

10개교에 안전기금 투입

광주 광산구가 납(Pb)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 교체에 지원 철거작업 지원을 시작했다.

광산구는 지난 5일 오전 광주 비아중에서 우레탄 트랙 841㎡를 철거했다. 철거된 자리는 교육청의 재시공이 이뤄질 때까지 부직포나 마사토 등으로 임시 포장된 상태로 유지된다.

광주시교육청 조사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광산구 소재 학교는 총 10곳으로, 육상부를 운영하는 비아중의 트랙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7배 높은 kg당 691mg의 납이 검출됐다. 교육청은 재시공 방법을 확정하고 관

련 예산을 확보한 뒤 철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해당 학교와 학부모 등이 학생 안전을 위해 즉시 철거를 희망할 경우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 여름방학 내로 철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친환경 우레탄 교체 등 재시공 방식과 시기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 이뤄지게 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아이들이 위험한 중금속 속에서 뛰노는 것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 학교 의견을 수렴해 철거를 시작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한 운동장 정성화를 추진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5·18재단, 동아시아 인권유린 ‘난징의 기억’ 전시

5·18기념재단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인권유린사건인 중국 난징대학살 사건을 주제로 한 ‘난징의 기억, 1937년 일본의 난징대학살’이라는 기획전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다음달 21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개막한 이번 기획전은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1937년 12월 13일 일제가 중

국 난징을 점령, 6주간에 약 30만명을 대학살한 참상을 담았다.

기획전은 1부 ‘난징 보위전’, 2부 ‘난징, 침략과 학살’, 3부 ‘난징대학살 일본 전범 재판’, 4부 ‘난징, 도시의 기억’으로 구성됐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이 제공한 총 200여점의 사진 중 100여장을 선별했고, 8편의 관련 영상을 편집해 전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교통시설 및 주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